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웃치웃 5호

발행호 5호 발행일 2021년 10월 25일 창간일 2020년 10월 1일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순철 편집위원 이경은, 도윤정, 이산하, 김재영, 이채은, 지아람, 지수지
편집/디자인 이경은, 도윤정 인쇄 강원도민일보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T.033-245-5266)
협조 춘천시 로고제공 (주)mver (T.033-256-2045)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치웃치웃 5호
2021. 10.



2021 October **VOL. 5**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 4** **갤러리 상상언더 개관전 <상상을 파는 사람들>**
Special 춘천지하상가 전시공간
- 8** **다시 추억이 있던 자리에**
People <소곤소곤 카페> 신지철 대표
- 10** **100년을 바라보는 전통있는 불고깃집**
People <유일관> 이숙자 대표
- 12** **끊임없는 두드림, 시간을 잇는 작업**
People <강동대장간> 박경환 대표
- 14** **이야기, 마을을 품다**
People 길명춘 이야기 할머니
- 16** **근화소양에 파란 말풍선이 뿔었습니다!**
Focus 춘천도시재생 브랜딩 <홍보사인>편
- 18** **오래된 집, 새롭게 태어나다**
Focus 집수리지원사업 103가구 달성!
- 19** **어린이부터 어른신까지, 모두 함께 지키는 건강!**
Focus 신체 활동하기 좋은 건강한 마을 만들기
- 22** **50호 마을의 이야기를 머금다**
People 50호 마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생각
- 25** **다시, 꽃 피우다**
People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반 <꽃누리 이야기>
- 26** **설립발기인 3팀을 만나다**
People 약사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모의창업 과정



발행호	통권 5호
발행일	2021년 10월 25일
창간일	2020년 10월 1일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이순철
편집위원	이경은, 도윤정, 이산하, 김재영, 이채은, 지아람, 지수지
편집/디자인	이경은, 도윤정
인쇄	강원도민일보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T.033-245-5266)
협조	춘천시
로고제공	(주)mver (T.033-256-2045)



춘천지하상가 전시공간

갤러리 상상언더 개관전

상상을 파는 사람들



춘천지하상가 육림고개 방면 남부로로 쪽 걸어가다 보면, 흰색의 환한 점포가 보인다. 2021년 9월 개관한 문화예술 전시공간 ‘갤러리상상 언더’이다. 춘천지하상가는 시민들의 사계절 쉼터이자 옷을 사려면 반드시 와야 하는 곳이었다. SNS와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고 실상 가상 코로나 19까지 발생하며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그렇게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이에 춘천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조운동 도시재생의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사업으로 춘천지하상가에 전시공간 ‘갤러리상상 언더’를 오픈하였다. ‘갤러리’라는 문화적 공간이 생기니 어둠던 지하도가

글 지아람
사진 마실스넵
인터뷰 김대영 작가, 김동문 부분과장



환하게 비추는 느낌이다. 어렸을 적 춘천지하상가에 갔을 때는 맨 끝까지 걷기에 멀고 어둡다고 느껴, 길을 걷다가 다시 중앙분수대로 돌아가곤 했다. 이제 멀리서도 보이는 하얀 공간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 마음이 든다. 그렇게 춘천 지하상가 점포 끝까지 걸어오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갤러리를 중심으로 옆에 있던 공실 상가들을 다양한 예술가들의 창작과 전시 활동으로 활용하고, ‘예술의 거리’, ‘예술의 공간’으로 문화적 재생을 하고 있다. 갤러리 상상언더 개관전 ‘상상을 파는 사람들’이 9월 1일 15시에 오프닝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정훈 마이미스트의 익살스러운 움직임에 길을 가던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중앙분수대에서 공연을 하며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갤러리로 이동하여 작가와 작품을 마임으로 소개하였다. 갤러리 상상언더 개관전 참여 작가들은 모두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로, 개관전과 동시에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술체험을 진행하였다.



갤러리 상상언더 개관전 참여작가 인터뷰 김대영 작가

갤러리 상상언더 개관전과 예술체험을 진행하면서 어떠셨나요? 33년간 외지에 있다가 춘천지하상가에 왔는데, 상가가 침체하고 어두운 느낌이 들었어요. 갤러리 개관전도 하고, 예술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인지 최근 밝아진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도 예술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상가에 있는 시민, 상인분들과 소통을 해가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춘천지하상가에 와서 문화예술을 즐겁고 좋은 상품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편하게 찾아오길 바라요.



‘갤러리 상상언더’부터 작가님들 작업실까지 구역이 ‘예술의 거리’로 명칭 되었다고 들었어요. 큰 갤러리, 작은 갤러리, 오픈 스튜디오 등 공간이 크지 않지만, 의미가 있어요. 작가들은 개인 작업실에서 현장 작업을 하며, 오가는 사람들과 작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작품 제작하는 곳도 보여주는 오픈스튜디오 개념으로 만들고 싶어요. 언제든지 시민들이 방문하면 작은 갤러리, 큰 갤러리 미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시민과 상인, 예술가 서로가 상생하는 좋은 공간이 되길 바라요. 앞으로 도시재생센터와 공조해서 시민 상인과 호흡하여 좋은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어나가고 싶어요.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진행되는 무료대관 신청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11월 1일~14일은 춘천 구암갤러리에서 개인전이, 11월 16일~30일까지 춘천지하상가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존재의 가벼움으로’ 개인전을 해요. 전시할 공간이 늘어난 것은 작가들에게 무척 좋은 기회이죠.



중앙로 상상언더그라운드 조성사업

기간 21. 09. 01.(수) ~ 21. 09. 15.(수) 오전 11시 ~ 오후 6시
장소 춘천지하상가 육림교개 방면 남부로 마 56



예술체험 참여 주민 인터뷰 요선동 김동문 부분과장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예술체험을 권유했을 땐 아리송했죠.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을 위해 진행한다길래 ‘좋은 취지겠거니’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참여해보니 일터로 나가기 전에 선물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작가들과 이웃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만의 작품도 만들고 즐거웠죠.

문화예술 공간을 통해 조운동네(새명동, 요선동, 지하상가)의 상인들도 참여하며 예술을 체험하였다. 상가에서 일하기 전 또는 쉬는 시간에 잠시 와서, 남을 위한 상품이 아닌, 나를 위한 예술작품을 만들며 소통하고 서로가 즐겁게 지냈다.

‘갤러리 상상언더’는 22년 정기대관 신청 모집을 하고 있다. 이메일 접수와 방문 접수를 하고 있으며,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운동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춘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갤러리 상상언더’에 다양한 예술가들이 창작과 전시활동으로 조운동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 📷

다시, 추억이 있던 자리에

〈소곤소곤 카페〉신지철 대표

문 너머로 퍼지는 향긋한 원두의 향과 보는 사람의 기분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귀여운 눈웃음의 강아지 동상이 카페로 발걸음을 향하게 만듭니다.
오랜 세월의 역사를 간직한 만큼 옛것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번개시장 속,
젊은 감각으로 눈길을 끄는 소곤소곤 카페 신지철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서른두 살이 된 신지철입니다.

소양로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외할머니께서 이곳 소양로 번개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었고
외가 친척들이 춘천 소양로에 계셨어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살다 2019년에 본격적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장사하시던 번개시장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당시엔 큰 외삼촌께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때 만해도 번개시장은 지금보다 많이 북적북적했죠.
장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당시에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카페에 대한 동네 어르신들 반응은 어때요?

어르신들께는 조금 낯선 가게잖아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르신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요즘엔 어르신들도 아메리카노나 라떼같은 커피를 맛있게
드시거든요. 오히려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곳 상인 분들이 모두 오랫동안 장사하신 베테랑 분들
이어서 장사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요. 김장철에는
김치도 담가다 주세요.

번개시장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게 말이 쉽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예요. 센터에서도 재생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요. 저희는 조금씩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곳 소양 근화동 같은 경우는 단독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주택 마당에서 화초와 식물을 키우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식물을 모두
함께 키우자는 나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식물이라는
주제로 애기거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봄
전에는 벽부등 설치나 페인팅 작업도 많이 했었죠.

조금씩이나마 전통시장 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과정이 느리기는 하지만 다행히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변화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젊은 분들이 기존 기성세대 분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간단한 배너
제작이나 홍보 같은 부분이 그렇죠.

대표님만의 장사 철학이 있으신가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장사하다보면 늘 느끼는데,
돈이 많아봤자 저는 변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저는 바뀌어요. 모든 사람에게 배울게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재밌어요. 가볍게 커피
드시러 오는 손님들의 행동이나 태도에도 배울 점이
많아요.

앞으로 카페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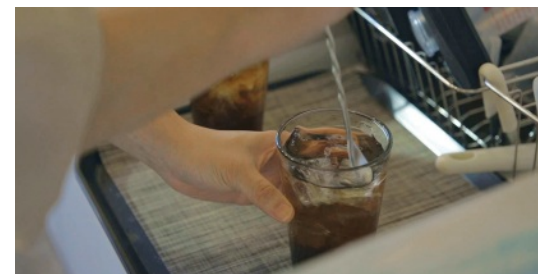
이 장소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이는 모습이야 바뀌겠지만 저의
가치관이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계속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속.

번개시장의 단점과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번개시장이 새벽에 열려요. 도매상인 분들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그때 재료를 사러오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손님들이 오시면 시장이 닫힌 모습을 많이 보고 가세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장점은요?

앞으로 번개시장은 확실하게 변화할 것 같아요. 시장의
기능보다 다른 부분으로요. 그리고 그건 부정적인 변화가
아닐 거예요.



일반적인 시장의 개념을 벗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기존 시장의 개념에 다른 부분들이 추가되겠죠. 이곳엔
숨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더 많은 상인들이 찾아오고 하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곳 소양로가 대표님의 노스텔지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죠. 그냥 할머니가 지내셨던
곳으로 돌아온 건데.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 왔을 땐 공사도 많이 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편의 시설이 조금 부족할 뿐 살기는 좋아요.
소양강에서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이곳의 변화를 위해 더
노력할 생각이예요. 부족한 변화는 제가 만들면 되는
거죠. ☺

기고 도윤정, 지수지

발췌 춘천 근화소양 이야기 <백인보>

인터뷰 <소곤소곤 카페> 신지철 대표

근화소양 마을백인보 사업으로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근화소양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춘천시 당간지주길74번길 11-14)에서
책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전통있는 불고기집 ‘유일관’

〈유일관〉 대표 & 조운동 주민협의회 대표 이숙자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바로 보이는 건물, 갈색 벽돌이 그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가게, 소불고기가 메인메뉴인 유일관이 보인다.

유일관을 시작으로 중앙로터리 남동 측의 새명동거리는

춘천의 대표 극장이었던 피카디리극장(구 소양극장)과 아카데미극장이 있던 상권이였다.

주로 음식점과 상점이 있으며 반대편 명동거리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보인다.

유일관 건물의 연식은 이 거리가 얼마나 역사가 있는지 말해주는데, 빈 상가들이 많아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새명동거리는 도청과 시청 앞에 있는 춘천의 중심상권으로서 오래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새명동에서 춘천 상권의 변화를 지켜보신 조운동 주민협의회 이숙자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였다.

유일관은 어떤 곳인가요?

전통이 있는 소불고기 집, 3대를
이어서 가고 있어. 기둥에 명석만 봐도
얼마나 전통이 있어. 100년을 바라보는
불고기집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간판을
한 거야. 유일관은 87년간 운영이
되었어. 내가 맡아서 한지는 약 20
년이야. 50대 초반에 인수해서 시청,
도청, 검찰청, 춘천여고까지 끼니를
책임졌지. 옛날에는 3층 건물을 다
사용했는데, 불고기, 소갈비, 뷔페 다
했어. 음식도 순수한 우리 것만 하고
있어. 김치도 우리 거, 고추도 우리 거,
하다못해 계장도 매일 무쳐나가고,
시금치, 무채 나물 다 우리 거만 하는
거야. 한우도 우리 거, 와서 드신
사람은 대여섯 번은 더 찾아와.



100년을 바라보는 전통있는 불고기집 ‘유일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4 전화 033-254-2897 운영 오전 10시 ~ 오후 8시

운영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최고 어려움 이 두 번이었어. 2007년 때 광우병이 터져서
진짜 마이너스 생활을 한 거지. 두 번째는 2019년도에
시작한 코로나 타격인데 이게 은근히 사람을 마르게 해.
긴 터널도 이런 긴 터널이 없어요. 아주 깊고 깊은
터널이야. 광우병은 한 6개월 갔나 봐. 많아도 7~8
개월뿐이 안 간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손해 봤지만,
그래도 시나 도에서 어려운 집에 가서 팔아주고 협력해서
좋았는데, 이거는 거리두기 하고 사람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힘들지. 이 코로나는 정말 기름 을 짜는 것
같다고 할까. 참모님이 지금 이 집에서 45년을 계셨거든?
참모님과 직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게에
나오고 있는 거야.

앞으로 하고 싶은 꿈이 있으실까요?

조운동 주민협의회 대표로서 조운동(새명동, 요선동,
지하상가) 마을이 전국 으로 이름이 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 새명동에 어울림센터도 들어오고, 이 새명동
길에 차 없는 도로가 그림같이 만들어졌으면 해. 춘천
시청이 있는 중심인데, 여기는 도넛같이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여기 주변만 낙후되어 보여. 내년에 인근도로
지중화 사업을 해. 또 이 앞에 몇 십 년 된 집을
리모델링해서 도로와 집과 함께 깔끔하게 하고 싶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코로나로 많은 주민과 회의하고, 합의하고 그래야 하는데
못하고 있잖아. 부대표, 분과장, 부분과장 자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지금은 조운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운동이 전국에서 가보고 싶은
곳으로 됐으면 좋겠어. 내 꿈이야.

조운동이 춘천을 넘어서 전국까지 유명해져서 바빠지고 활기를 띠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진다.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희망을 품는 주민과 함께 일을 일구어가는 게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라 생각이 들면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운동네가 활발해지길 기대해본다. 📷

글/사진 지아람 인터뷰 〈유일관〉 대표 & 조운동 주민협의회 대표 이숙자



百八步

끊임없는 두드림, 시간을 잇는 작업

〈강동대장간〉박경환 대표

이른 새벽,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소리.
그것은 바로
대장장이의 땀방울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
굳건히 지켜온
강동대장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고 도윤정, 지수지
발췌 춘천 근화소양 이야기 〈백인보〉
인터뷰 〈강동대장간〉박경환 대표

근화소양 마을백인보 사업으로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근화소양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춘천시 당간지주길74번길 11-14)에서
책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68년생 박경환입니다. 올해 53세고요.

대장간을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됐나요? 본래는 우리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곳이었어요. 아버님이 손을 놓으신 게 2006년이니까, 제가 이끌어 온지 13년,
14년 정도 됐네요.

대를 이어 대장간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당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성격이 잘 안 맞았어요. 회사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배신도 많이 당하고요. 결국 내 갈 길이 아니다 싶어 춘천에
내려왔는데, 때마침 아버님이 대장간 옆에 빈 자리가 있으니 낚시점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낚시를 좋아했거든요. 여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낚시만 한 적도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동원낚시라는 가게를
시작했다가 자연스럽게 대장간으로 옮겨오게 됐죠.

아버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버님이 처음에
나를 꺾일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냥 대충 치다가 대충 만들면 돼.
우리 밥 먹을 정도로만 하자. 그러시길래 저도 그렇게 합시다, 하고 시작하게
됐죠. 근데 밥값하기도 전에 아버님이 일을 그만두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전부 맡아서 하게 됐죠.

그런 사연 치고는 적지 않은 시간을 이끌어 오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생각도
없었어요. 아버님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것을 보고 안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돈은 자기가 벌어들 테니
집에서 살림을 하라고요. 나중에 술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하게 됐어요. 주위에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다고 해요. 금방 관둘 줄 알았다고.

대를 이어간다는 책임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만 해결 되면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대장간
기행을 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알았어요.
대장간에서 만드는 물건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걸. 이 일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그때 했어요. 아이들 상대로
수업도 시작하고, 축제에서 홍보도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현재 소양로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 변화 속에서 강동
대장간은 어떻게 바뀌어 갈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들이 이
대장간을 이어간다고 해서 지금
바깥쪽으로 유학을 보내 났어요.
저는 아들이 오기 전까지 터전을
만들어 놓을 생각이예요. 그래서
요즘은 춘천시를 자꾸 두드려요. 돈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춘천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이 이 일을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아버로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깨지겠지.

대장간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있다면요? 우리 집사람이 아닐까
해요. 늘 응원해주고, 뭘 잘못해도
자존심 상하는 말 안하고, 항상 내
신랑이 최고라고 말해주고. 그게
원동력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한 번은 내가 산에 가서
버섯을 캐다가 눈을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안과에 가니까 수정체를
깨매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도 못하고 한 3일째 쉬고 있는데,
애들이 자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나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원동력이
아닐까 해요.

앞으로 대장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해요.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지.
지금도 이쪽 소양로가 계속
도시화가 되어 가는 중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업은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요즘 민원이
들어와서 새벽일을 못해요. 원래
대장간은 새벽부터 일해서 오후에
손님을 맡아야 되는데, 하도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요즘엔
아침 여덟시부터 일해요.
그러다보면 점점 외곽으로 밀려날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이 일을
지속하고 유지해야죠. 인류문명이
만들어낸 문화유산이잖아요.

대장간 일에 큰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농기구를 많이
만들어요. 그게 우리 대장간의 주
업무니까. 하지만 요즘 농기구
사용도 많이 줄었고, 화폐가치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지켜야 해요. 저는 우리 강원도와
춘천시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단순히 지원해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문이
열리겠죠. 그때까지 나는 내 업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야.

사장님께서 도시재생은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어요. 지난 5년간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들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지역 주민들이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은 촉매제
역할만 했을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활성화 하는 게 맞는 거죠. 

百八步

이야기, 마을을 품다

길명춘 이야기할머니



단아하고 우아한 한복처럼 고운 목소리의 길명춘 이야기 할머니.

그런 할머니의 모습과는 달리 54년 간 살아온 할머니의 근화동 세월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래동화가 아닌 길명춘 이야기 할머니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근화소양 마을백인보 사업으로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근화소양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춘천시 당간지주길74번길 11-14)에서 책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77세가 된 길명춘입니다.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야기 할머니라는 이름이

생소해요. 이야기 할머니는

국가자격증예요. 나이 제한을 두고

전국 각지에서 신청을 받아

안동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해요.

시험문제는 이야기로 나와요. 각

나라의 길고 짧은 이야기,

우리나라의 할미꽃이나 호랑이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걸

사람이 많은 강당에 올라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요. 호랑이가 나올 땐

호랑이 소리를 내고, 고양이 나올 땐

고양이 소리를 내고, 늑대가 나올 땐

늑대 소리를 내는 식으로. 그렇게

2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불합격이에요.

말 그대로 이야기를 전해주는

할머니네요. 네. 그렇게 자격증을

따면 국악으로 배정을 받아요. 저의

경우는 오색나라 어린이집, 더샵

아파트 어린이집, 한림 성심

어린이집으로 배정 받았어요.

그렇게 학급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할머니,

블라우스 바지보다 한복을 입고

와야 예뻐요. 그래서 부라부라

한복도 따로 맞춰 준비하고 그랬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조금

힘들어요. 외국의 동화나

전래동화들은 소품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야기 할머니는 그런

소품이 없어요. 다 내 머릿속에 넣고

해야 해요.

소양로에 사시게 된 계기는요?

중도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라고

공부했어요. 23살에 근화동으로

시집을 와서 벌써 54년이 됐네요.

처음엔 이 동네가 산골짜기라고

들었어요.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솔직히 사람 살 곳이

아니었어요. 당시 저희 집 들어오는

대문 앞이 계곡이었는데, 연탄을

시키면 큰 통나무로 만든 다리를

건너서 연탄을 놓고 가곤 했어요.

통나무 밑으로는 바위가 덩성하게

있고, 밤이 되면 물소리가 요란하게

났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

길을 다 닦았어요.

홍수가 난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 골짜기 위에 큰 폭포가

있었어요. 거기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물이 터져서 온 집이

지붕까지 잠기고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오죽하면 복구할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아파트로 가서

살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때

복구공사를 나온 군인들 사오십

명이 한 달을 고생했어요. 우리

집에서 밥을 다 해먹었죠.

많이 변했네요. 개울가에 통나무

다리를 지나던 곳이 지금은 도로가

깔리고 건물이 들어섰잖아요. 많이

변했죠. 당시엔 물이 넘치고

나무다리 건너던 길을 새마을

운동으로 시멘트를 바르고 하면서

전부 바뀌놓은 거예요.

이 동네에서 반장, 통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반장은 한 20년 한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반상회를 하면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도 열심히 해야 했고,

반상회도 해야 했어요. 반상회

참석률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했죠.

반상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누도 준비하고, 이사 오고

나가는 분들을 위해 밥통이나

화장지도 준비하고요. 그때 우리

동네는 한집도 안 빠지고 전부

나오셨어요. 참 재미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 동네를 구석구석 다 알고

있었고, 어디에 누가 사는지도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장도 한

팔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어떤가요?

발전하는 모습도 좋아요. 하지만

때로는 옛날이 그리워요. 내가 기른

야채를 직접 뽑아서 번개시장에서

팔고 이럴 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은 못하니까 조금 아쉽죠.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일까요? 그렇죠. 제가 살았던

중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에게도

중도에 가서 봤는데, 지금은

레고랜드 만든다고 전부 허물어서

제가 어디에서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진즉에 알았으면

동영상으로 찍어놔다가 시간 날 때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런

장면을 어디에서 보겠어요. 그때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죠. 📷

기고 도윤정, 지수지

발체 춘천 근화소양 이야기 <백인보>

인터뷰 길명춘 이야기할머니



춘천도시재생 브랜드 <홍보사인>편

근화소양에 파란 말풍선이 떴습니다

근화소양 마을 입구에 파란 말풍선이 떴습니다. 구름 같은 하얀 배경에 가을 하늘을 닮은 파란색 테두리를 두른 말풍선에는 ‘춘천도시재생’의 시그니처가 한가운데에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곳은 마을 주민을 위해 조성한 「근화주민센터」입니다’라는 짧은 안내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근화소양 마을 입구에서 근화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조금 더 걸어가 봅니다. 작년 초봄부터 새로 정비한 육각형 패턴의 미끄럼 방지 도로와 연보라색으로 포인트를 준 담장과 지붕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화초등학교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걸으니 파란 말풍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왕릉 숲길 갈비 옆 담장에도, 호반 유치원 앞의 타일로 예쁘게 꾸며진 주택에도, 택시 단지를 두른 담장에도 파란 말풍선이 떠 있습니다. 연보라 벽화, 연두색 벽화, 원목 담장 등을 단서로 삼아 파란 말풍선을 찾아내는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이 파란 말풍선들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했거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장소임을 알리는 춘천도시재생 홍보사인입니다. **로고와 사인의 메인 아이덴티티인 말풍선은 ‘지역과 주민이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도시재생을 통하여 안정된 주민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시그니처를 담은 홍보사인은 도시재생 거점공간, 사업 참여 공간에 설치되는데, 설치 장소의 다양한 여건에 맞출 수 있도록 벽부형, 가로등형, 지주형, 입간판형, 바닥형으로 크게 6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개발되었고, 모든 타입은 다시 일반형, 응용형, 스페셜형 등으로 세분화되어 총 37종이 개발되었습니다.

사업명

춘천도시재생 사인디자인 개발
춘천도시재생 홍보사인 제작 및 설치
개발기간

2020. 11. ~ 2020. 12.

설치기간(1차)

2021. 4. ~ 2021. 8.



좀 더 멀리 걸어 번개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번개시장 출입구 문주에서부터 반대편 문주까지 번개시장 길을 따라 쪽 설치된 가로등에도 파란 말풍선이 떴습니다. 말풍선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커뮤니티 정원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말풍선과는 조금 다른, 성인 남성 키만한 거대한 말풍선이 등장합니다. 이 말풍선에는 근화소양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조성된 마을 공유공간 11곳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담겨있습니다. 말풍선 앞의 파란 벤치에 앉아 찬찬히 지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근화소양 현장 외에도 약사명동 현장, 교동소양 현장, 조운동 현장, 우두동 현장 총 5 구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주요 거점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으나 각각의 건물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란 말풍선은 이러한 거점시설을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파란 말풍선은 근화소양 현장에 이어 약사명동, 교동소양 등으로 차례대로 퍼져나갈 것이고, 사업이 확장되면 될수록 춘천시 곳곳에 떠오를 것입니다. 거리를 걷다가 파란 말풍선을 만나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주민을 위해 조성된 도시재생 공유공간입니다. 

글/사진 이경은

집수리지원사업 103가구 달성!

오래된 집, 새롭게 태어나다



약사명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집수리 지원사업이 순풍에 돛 단 듯 순항 중이다. 해당 사업은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외부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3월, 11가구로 시작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차 사업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현재까지 목표가구 100가구를 달성해 총 103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 103가구라는 숫자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약사명동 도시재생뉴딜 사업구역 내 총 364가구 중 103가구가 혜택을 받은 것이다.**

본래 6차까지 예정된 집수리지원사업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드리기를 위해 도시재생과와 논의하여 올해 12월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년 봄에 착공하는 일정으로 집수리지원사업 7차를 준비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마을활동가가 가가호호 집수리지원사업 안내문을 배포하고 직접 만나 홍보를 했음에도 6차 사업이 종료된 후에야 집수리지원사업을 알게 된 주민들이 센터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사업을 희망했기에 7차를 추진할 수 있었다.

6차 사업을 신청한 정정순님은 “도시재생 사업 덕분에 오래된 지붕과 대문을 새로 고치게 됐다”며 기뻐했다. 또 약사리문화마을 마을활동가 김명숙님은 “사업이 여러번 진행된 마을 풍경이 보기 좋게 변하고 있다”며 “7차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집수리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나 코디네이터는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집 내부 수리를 하는 등 의미있는 변화도 생겼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주민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

글/사진 김재영

신체 활동하기 좋은 건강한 마을 만들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함께 지키는 건강!

우리 마을(동네)에는 _____ 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빈칸 속에 어떤 말을 채워보셨나요?

안전한 골목, 아이들이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 혹은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마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마을의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데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춘천시 교동·소양동은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비중이 높고,

어린이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어 ‘건강과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동·소양동 지역을 앞으로 건강한 돌봄이 있는 마을로 만들어가고자

‘건강한 주민이 건강한 마을을 만든다. 신체 활동하기 좋은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한림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와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90명의 참여자와 함께 즐겁게 건강도 관리하고, 활력을 되찾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건강을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디딘

<헬스케어 프로그램> 참여자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려 가실까요?



사업명 헬스케어 프로그램 사업기간 2021. 5. ~ 2021. 11. 사업대상 교동소양동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춘천시민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무릎이 아파져서 재활 운동 치료를 받는 중에
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노년들을 위한 근력운동이어서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안 쓰는 근육을 쓰게 해주어
근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 어르신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어르신

하나,
마음도 몸도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가요!

운동은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몸이 달라지는 것을 알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운동하면서 활력과 삶에 의욕도 생기고,
기본 전라도 되어요.
많이 아팠던 부분도 개선이 되고
힘도 많이 생기고
기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 어르신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어르신

몸이 건강해졌어요!
평소 줄넘기를 안 좋아했는데
이 수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줄넘기를 앞으로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유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이태준 어린이

들, 서로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집안에서 담당함을 느끼고 평소에 접하지 않은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모르는 분들과 웃으면서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즐거움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 어르신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어르신

평소에 아이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학교 방과후 학교 줄넘기를
신청하였는데 폐강이 되어 아쉬워하던 도중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어요. 줄넘기는 단순히 뛰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줄넘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신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안 가고 싶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재미있어하는 것 같아요.
- 유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학부모



셋, 지역의 돌봄을 함께하며
운동의 즐거움을 되찾아요.

아이가 아토피와 비염이 있어 땀을 내는 운동을 하기 위해
매일 줄넘기를 같이하자고 마음먹고 함께하던 중이었어요.
운동 중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줄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췌저가 있는 집이라 아이들 요구가 많다 보니
아이와 줄넘기를 매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줄넘기 프로그램을 알고 온 좋게 신청하게 되었어요.
주 1회 1시간이지만 꾸준히 한다는 것이 큰 힘인 것 같아요.
느스로 줄넘기를 못 한다고 생각해서 집 앞 놀이터에서 줄넘기를 안 하던 아이도
줄넘기에 더 자신감이 붙어서 더 열심히 해요. 음
악에 맞춰서 재밌게 줄넘기를 가르쳐 주셔서 아이들이 더 좋아했고
집에서도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어서 줄넘기가 생활화된 것이 좋아요.
일주일에 1번 자제와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줄넘기하러 가고 있어요.
- 유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학부모



친해지고 싶고 운동도 좋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또 줄넘기도 잘못해서 하면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참여했어요. 일단 노래도 신나고 기술도 배우고
줄넘기에도 친해지고 무엇보다 재미있던 것 같아요.
다 재미있어요.
선생님과 의 수업이 재미있기도 하고
힘든 만큼 몸도 마음도 시원해요.
- 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박시연 어린이

참여자분들께서는 모두 각자 다른 이유로 운동을 시작하셨지만, 모두의 공통점 또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운동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신체활동은 일상에 '활력'을 주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줍니다.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번 가을부터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에 동참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교동 · 소양동 지역이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는 마을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안녕하세요. 헬스 케어 프로그램 운영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최경호 연구교수(한림대 체육과학연구소)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춘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되길 바라며, 특히 교동·소양동 헬스케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글/사진 이채은 협조 한림대 체육과학연구소, 프로그램 참여자

50호 마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생각

50호 마을의 이야기를 머금다

아기자기한 낮은 담벼락과 오밀조밀한 격자형 구조의 골목길이 귀여운 50호 마을. 그 속에서 한 손에는 종이접을, 다른 한 손에는 주민분들과 함께 나눠마실 음료를 들고 매주 목요일마다 〈사회적농업 마을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는 날임에도 상자텃밭에 심은 작물들을 보살펴주시는 여순희 어머니와 마을재생을 향한 의지를 보여준 50호 마을 주민들 곁에서 소양강을 비추는 파스한 햇살처럼 50호 마을의 햇살이 되어준 김보희 코디네이터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50호마을 42호집, 여순희 어머니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50호 마을에 사는 42호 집, 44년생 여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50호 마을에는 어떻게 정착하시게 됐나요? 근 60년 됐어. 시집을 여기서 왔거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남편은 직장 때문에 객지로 나가도 나는 시부모님과 계속 여기서 살았어. 50호 마을의 토박이지.

그 당시에 50호 마을은 어땠나요? 예전에는 난민촌이라고 해서 아주

허술했어. 수도도 공동으로 쓰고, 담벼락도 없고. 50호 주택을 모두 똑같이 지어서 손님이 오면 못 찾아왔어. 이 골목, 저 골목, 이 집, 저 집, 다 똑같았어. 평수도 47평. 우리 시어머니 때, 정말 옛날에는 형편도 어려워 정부에서 옥수수가루도 주고, 식용주도 주고 그랬대. 지금은 세월이 흘러 다들 돈도 벌어서 잘살고 있어.

현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군요. 그렇지. 지금은 집들도 고쳐지고, 사람들도 돈 벌어서 객지로 나가고.

여긴 객지 사람이 많아. 그래서 지금 50호 마을의 토박이는 우리 집이랑 1호 횃집 두 집뿐이야. 1호 횃집 할머니가 90대인데 특별하게 생각해. 갈 때마다 손도 붙잡고. 대부분 뜨내기거나 거진 4~50년 됐는데, 우린 60여 년 정도를 함께 했으니 말이야...

이웃들이 계속 마을을 떠나고 변화가 많은 동네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 동네가 단합되는 것이 없었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전부 제각각이었지.

지금은 ‘누리채’가 생겼잖아요. 누리채는 내가 지은 이름이야. 명칭 공모대회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내 것이 채택됐어. 그래서 애착이 가. 그런데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거 같아. 경로당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젊은 사람이 더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이 원활하고 활기차게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누리채가 활성화되지.

그러면 작년에 진행된 〈소규모 재생사업〉부터 참여하신 거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했지.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것저것 알려주시니 재밌었어. 그런데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겐 그때만 즐기고 끝이라 조금은 더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것들로 진행했으면 좋았을 거 같아. 다른 동네처럼 젊은 층도 참여해서 활기도 있고 했으면 좋겠어.

현재 참여하고 계신 〈사회적농업 마을돌봄 프로그램〉은 어떠세요? 경로당이 아니라 이런 공간(누리채)에서 모여 웃고 즐기니 재밌어. 또, 우리가 직접 재료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간만 내서 몸만 오면 되니까 부담도 없고 좋아. 그런데 배운 걸 집에서 하려고 하니 조금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 여기서 살았어. 50호 마을의 토박이지.

만약에 내년에도 재생사업이 이뤄진다면,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또는 작년과 비교해서 개선됐으면 하는 점도 좋습니다. 아직은 초창기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우리 이웃들도 좋은 안건을 낼 거고. 또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줄 거고, 점점 좋아지리라 믿고 따르고 있어. 다들 연령층들이 높아서 우리 마을이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재생사업 활동을 통해 이웃과 무언가를 함께 나눈다면 어떤 것을 나누고 싶으세요? 지금 하는 프로그램에서 배주 100포기를 심어서 김장할 건데, 이런 걸 동네에

혼자 살고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면 좋을 거 같아. 뭐를 나누면 좋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해.

앞으로 50호 마을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되길 바라시나요? 우리 마을이 아직은 좀 지저분해.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으니 주차장도 있으면 좋을 거 같아.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싸움도 나고 말이야. 마을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어.



☺ 김보희 코디네이터

안녕하세요. 코디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희 코디네이터입니다. :-> 현재 도시재생 예비사업 및 뉴딜사업 발굴, 직원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관내 유관기관 협업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과거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뉴딜사업 선정 실패와 비교하여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사업 준비의 부족과 마을공동체 형성의 미비함이 있었어요. 이는 뉴딜사업 선정의 실패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냈죠. 하지만 우두동 50호 마을은 마을재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잃지 않았어요. 따라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이전부터 여러 차례 주민들과 함께 마을에 모였어요. 주민간담회와 워크숍을 진행하며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재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죠.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덕분에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됐다고 생각해요.

오랜 노력 끝에 선정되어 기쁨이 남다르신 만큼, 소규모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보람찼던 순간이 있으실 거 같아요. 50호 마을은 춘천 내 다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과 비교해 참여 주민의 연령층이 높아 프로그램 참여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주민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셨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분들께서 이웃분들께 입소문을 내주신 덕분에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을 때는 시작할 때보다 많은 분께서 참여해주신 순간이 인상 깊어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공동체가 활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D

반대로 어려움과 아쉬움도 있으시겠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겨울에 시작한 점과 더불어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시기에 맞게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하는데 여건상 실내에서 진행할 수 없었던 점과 한 번에 많은 주민분을 모으기가 힘들었던 점이 아쉬웠어요.

코디님께서 생각하시는 50호 마을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을 통한 주민들의 성장 모습과 그런 주민들을 통해 마을 곳곳이 정갈하게 변해가는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50호 마을의 방향 또는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50호 마을에서는 <사회적농업 마을돌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2021년 하반기,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한 번 더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60여 년이란 오랜 세월을 50호 마을에서 보내온 만큼, 마을을 향한 남다른 애정이 느껴졌던 여순희 어머니. 어머니님과 대화를 나누며 이제는 희미해져 가는 50호 마을의 귀한 역사적 순간들과 주민이 원하는 진정한 마을 재생의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 경험을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김보희 코디네이터. 그녀와 50호 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코디네이터로서의 배려와 책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50호 마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며 일방적인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닌 서로 오고 가는 목소리를 담은 것이 도시재생을 향한 첫걸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50호 마을의 재생에 높은 관심을 두시는 여순희 어머니님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신 김보희 코디네이터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글/사진 지수지
인터뷰 여순희 어머니, 김보희 코디네이터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반 <꽃누리 이야기> 다시, 꽃 피우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
코디네이터들과 함께
교동·소양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다.

삼삼오오 책상에 둘러앉아 자리를 잡고
앞치마를 두르며 무언가를 준비한다.
기다리던 시간이 시작되고
모두가 꽃차로 하나가 된다.



지난 4개월 동안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반>을 진행했다. 총 12명의 꽃누리 회원들이 한국꽃차협회에서 발행하는 꽃차 소믈리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수료식과 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전시회에서는 그동안 꽃누리 회원들이 수업을 통해 만든 마리골드 꽃차, 버터플라이 꽃차 등 여러 종류의 꽃차를 선보였다. 오색빛깔 꽃차의 향연으로 전시회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눈도 마음도 즐거운 시간이 만들어졌다. 한 방문자는 그동안 꽃을 먹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며, 꽃차가 몸에 좋은 효능도 있다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수업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들도 “평소에 배워보고 싶은 수업이었는데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해요.”, “전시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눈요기도 많이 하고 차 마시면서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다며 귀한 것 대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인지 더 귀한 자격증처럼 느껴지고 꽃차처럼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라고 이야기했다.

꽃차 소믈리에 사회적협동조합 강명숙 원장은 꽃차는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뿐더러 하나의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업 때마다 수강생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화기애애했다. 비록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꽃차’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만은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었다.

꽃이 필 때와 질 때가 있는 것처럼 도시재생사업도 시작하는 때와 종료되는 때가 있다. 하지만 꽃차 수업을 통해 피었다 지는 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꽃으로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 또한 종료되더라도 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그 지역만의 새로운 꽃을 피워가면 좋겠다. 🌻

글/사진 이채은
협조 꽃차 소믈리에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명 주민공모사업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반>
기간 2021. 5. ~ 2021. 8.
장소 교동·소양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회의실

약사명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모의창업 과정

설립발기인 3팀을 만나다

☺️ 드림약사리(이로이스)

안녕하세요. 약사리 문화마을의 융합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로이스입니다. 이로이스는 2017년부터 약사리 문화마을에서 함께 활동하며 도시재생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창업과정에서는 약사리 문화마을을 널리 홍보하고자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이금순, 장순학, 정학용, 황선철님이 함께 '약사드림팀'을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모의창업과정을 통해 교육을 들으며 우리의 사업아이템에 팀원들의 개개인의 특색을 담아 내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금순님의 '다육이화분'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실내 원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며 다육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다육이 재배 원데이 클래스를 개설하고,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이웃들과 함께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순학님의 '목공예품'은 목공수업을 통해 제작한 다양한 생활용품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도마를 메인 아이템으로 참여합니다. 우리 약사리문화마을 주민이 만든 따뜻하고 내추럴한 느낌의 천연 원목 도마가 여러분의 주방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황선철님의 '뽕커피'는 커피 원두를 뽕튀기 기계로 로스팅하여 높은 압력과 화력으로 커피향을 고스란히 잡아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뽕튀기 기계를 커피 로스팅에 활용

해봤는데 커피향도 더 풍부해지고 주변 반응이 좋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뽕튀기 장인이 만들어 낸 커피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마지막 저희 이로이스는 '친환경 소재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하여 약사리 주민들과 아트상품을 제작했습니다. 나아가 약사리 문화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도 개발했습니다. 지역 프리마켓을 통해 소비자 선호도와 상품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프로젝트가 더 확장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 활동가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여 약사리 문화마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업하고 소통하겠습니다.

☺️ 굿모닝약사리(정한길)

주민협의체에서 홍보마케팅분과의 간사를 하고 있는 정한길입니다. 굿모닝약사리는 봄빛공예협동조합 이사장 김인숙님, 주민협의체 부회장 김정찬님, 재생도시지역인 손은영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의 사업아이템은 '오디김밥'입니다.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이টে을 고민하던 중,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오디김밥을 선정했습니다. 오디, 장아찌, 약초소금, 참기름, 깨소금 등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것으로 마을소득과 연계 되도록 했습니다.

향후 약사전을 이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비롯한 마을 방문자들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1가구1사업 콘텐츠를 발굴하여 협업을 통한 마을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파이팅약사(문복례)

반갑습니다. 파이팅약사의 문복례입니다. 파이팅약사는 저와 이수호님 두명으로 이뤄졌습니다. 저희 팀은 다른 팀에 비해 팀원 수가 적어 사업아이템을 선정할 때, 아이디어가 한정적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의창업과정을 통해 선진지 사례를 탐방하며 다른 지역을 견학하고 우리 약사리만의 특징과 강점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 새로운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의창업과정을 통해 현재 약초소금과 약초장아찌 그리고 약초막걸리/약초오색적/약초튀김 세 가지의 메뉴를 묶은 약초주막이라는 사업아이টে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 김재영

협조 드림약사리팀 이로이스, 굿모닝 약사리팀 정한길, 파이팅약사팀 문복례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ㄹㄹ(치웃치웃)' 5호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ㄹㄹ(치웃치웃)'은 춘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분들의 활동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 공간입니다.

우리 매거진은 PC 또는 모바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 웹진

▶ 웹진<치웃치웃> 5호

<https://uris.chuncheon.go.kr/webzine/5/index.html>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더 많은 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홈페이지<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uris.chuncheon.go.kr>

▶ 블로그<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c_crsc

▶ 유튜브<춘천도시재생>

https://www.youtube.com/channel/UCdg0FbJGB_AKPTkhPhjg3Bg

약사리마을 소통공간

▶ 카페 <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cafe.naver.com/munhwavillage>

▶ 인스타그램 <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www.instagram.com/yaksa_village/

▶ 페이스북 <춘천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YaksariFriends/>

교동소양동 소통공간

▶ 페이스북<교동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Gyo2019>

조운동네 소통공간

▶ 인스타그램 <조운동네>

<https://www.instagram.com/joundongne>

▶ 유튜브<조운동네>

https://www.youtube.com/channel/UC_haKq39kpwy6FDLgW97YtA

▶ 페이스북<조운동네>

<https://www.facebook.com/joundongne>